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 케인즈에게 경제학은 왜 도덕과학이며 어떻게 과학이 되는가*

박 종 현**

논문 초록

이 연구는 케인즈가 해로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시한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라는 진술을 『확률론』의 인식론적 체계로 재구성해 그 방법론적 실체를 규명한다. 케인즈에게 경제학은 ‘기예’적 직관과 ‘과학’적 엄밀성이 결합된 도덕과학이다. 기예의 단계는 현실에 적합한 전제를 포착해 모델을 제작·선택하는 인식론적 실천이며, 과학의 단계는 모델이라는 논리적 엔진을 통해 파편적인 직접적 지식을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간접적 지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를 『일반이론』의 투자 이론 사례에 대입함으로써 모델을 통한 지식 생산 메커니즘이 인간 상황의 개선이라는 실천적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증한다. 1938년의 수사학적 진술이 TP의 엄밀한 틀 안에서 재해석될 때 케인즈가 지향한 도덕과학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남을 밝힌다.

핵심 주제어: 존 메이너드 케인즈,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 확률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2, B3, B4

투고 일자: 2025. 11. 12. 심사 및 수정 일자: 2025. 12. 15. 게재 확정 일자: 2025. 12. 26.

* 이 논문은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높고 성의 있는 논평 덕분에 내용과 형식 모두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ecohis@gnu.ac.kr

I. 머리말

경제학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환상’은 보편적 현상이다.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 가장 견고한 학문으로 공인되었고, 저명한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가 기후변화 해결의 근거를 경제학자의 연구에서 찾을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Pinker et al., 2016). 이러한 신뢰의 근거에는 1930년대 라이어널 로빈스(Lionel Robbins)가 확립한 ‘경제과학’(Economic Science)의 정의가 자리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합리적 선택을 탐구하는 이 정의는 경제학을 자연과학에 가까운 엄밀하고 견고한 학문으로 만들었다. 결국, 20세기 경제학은 ‘경제과학’의 길을 걸었고, 사람들의 “동기, 기대, 심리적 불확실성”(Keynes, 1938b, p. 300)은 모형에서 점차 사라졌다. 경제학은 엄밀해졌지만 현실 설명력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경제과학’의 흐름과 달리,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경제학이 추상적인 모델에 힘입어 현실의 핵심을 포착한다는 점에서는 ‘과학’이지만, 가치판단의 문제를 다루고 인간 본성에 관한 성찰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도덕과학’이라고 믿었다. 현대 행동경제학의 등장은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본성 및 가치판단을 이론 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인즈의 이러한 통찰을 계승해 ‘도덕과학’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처럼 ‘경제과학’의 그늘에 가려졌던 ‘도덕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케인즈가 1938년 로이 해로드(Roy Harrod)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를 핵심 텍스트로 삼아 심층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경제학계에서는 경제학을 ‘도덕과학’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관련 후속 연구가 크게 줄어들었고, 케인즈의 1938년 편지 자체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케인즈의 경제학 체계를 깊이 있게 해명한 Gruchy (1949)나 경제학의 본성에 관한 로빈스의 관점에서 케인즈의 작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Witztum (2011)에 편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1938년 편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분석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가령, Raffaelli (2006)는 케인즈의 철학적 방법을 확률이론 및 귀납법과 연관지어 검토하는 과정에서, Hoover (2006)는 케인즈의 모델과 왈라스의 모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Rona (2007)는 현대 경제학의 과학주의를 비판하고 도덕과학 전통의 복원 가능성을 모색하면

서, 케인즈의 편지 내용을 간단히 인용한다. Atkinson (2009)은 경제학에 가치판단 및 윤리적 요소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편지의 가장 유명한 부분, 곧 “Robbins와는 반대로,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도덕과학”(Keynes, 1938a, p. 297)이라는 부분을 인용하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Carabelli and Cedrini (2018)는 케인즈의 윤리학과 경제학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한 연관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편지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다룬다.

이보다 더 나아가, 편지를 케인즈의 철학적·방법론적 기초와 연결하려는 시도들도 있다. O'Donnell (1989)은 케인즈의 확률론이 철학적 논변이라는 관점 위에 이러한 특성이 그의 경제학 및 정치사상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과학과 경제학의 차이 및 경제학 방법론 등의 측면에서 편지 관련 논의를 비교적 상세히 전개한다. Davis (1991)는 경제학을 ‘도덕과학’으로 보는 케인즈의 관점을 그의 초기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던 G. E. 무어(G. E. Moore)와의 관련 속에서 재조명하고 개인적 판단·내성·가치판단 등의 개념에 주목하는데, 이때 확률론에 더해 편지도 본격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

또한, Davis (1994)는 케인즈가 ‘개인과 사회의 조화’라는 윤리적 문제의식을 젊은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의 직관을 강조하는 초기 철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지 못했고, 이후 경제학을 연구하며, 인간이 사회적 관행과 상호의존적 기대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새로운 인식론을 발전시켰음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편지를 활용한다. Harcourt and Sardoni (1994)는 경제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 및 경제학이 도덕과학인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편지의 주요 명제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검토한다. Colander (2011)는 현대 거시경제학이 케인즈가 제시했던 본질적인 방법론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하며, 경제학자 양성 및 훈련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그 핵심 논거를 편지에서 도출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1938년 편지의 핵심 주장들을 그의 다른 저작들, 특히 1921년 발간된 『확률론』(A Treatise on Probability, 이하 TP)과 1933년 발간된 『인물평전』(Essays in Biography, 이하 EB) 그리고 1936년 발간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이하 GT)의 논의들과 긴밀히 연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특히 ‘경제학은 논리학의 한 분야이고 본질적으로 도덕과학이다’, ‘경제학은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과 현재 세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의 결합이다’, ‘경제학은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

다’는 1938년 편지의 핵심 주장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제학의 정체성 및 방법론에 관한 케인즈의 견해를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나아가, 그동안 단편적인 문장으로만 소개되었던 케인즈의 1938년 편지 전문과 EB의 핵심 서술들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소개하고 독해(讀解) 함으로써, 케인즈의 문제의식 및 사고체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경제학 연구자들이 직접 음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절에서는 1938년 해로드와 주고받은 편지를 당대의 경제학 방법론 논쟁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이를 ‘경제학은 논리학의 한 분야이고 본질적으로 도덕과학이다’, ‘경제학은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과 현재 세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의 결합이다’, ‘경제학은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다’는 핵심 주장으로 요약한다. III절에서는 TP의 핵심 이론 및 주요 개념을 제시하고 O'Donnell(1989)과 Carabelli(2021)의 관련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1938년 편지의 주요 주장을 재조명할 인식론적·지식생산이론적 기초를 확립한다. IV절에서는 EB 중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 프랭크 램지(Frank Ramsey),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평전의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V절에서는 TP의 주요 개념 및 지식생산 체계에 근거해 1938년 편지의 주요 주장을 엄밀하게 재해석하고 이를 『일반이론』의 투자 이론 부분과 연결시켜 그 구체성을 높인다. VI절 맺음말에서는 경제학은 왜 도덕과학이며 어떻게 과학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신고전학과 경제학 및 행동경제학과의 대비 속에서 ‘경제학 교육의 혁신’과 ‘다중 모델’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 논문의 한계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II. 1938년 로이 해로드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

케인즈는 1938년 7월 절친한 경제학자이자 훗날 그의 전기를 집필한 해로드에게 두 편의 편지를 보낸다. 케인즈는 7월 4일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당시 ‘영국과학진흥협회 경제과학 및 통계 분과’ 회장 연설을 앞두고 해로드가 작성한 글을 리뷰하며 경제학의 본질 및 올바른 연구 방법론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¹⁾. 해로드

1) 해로드는 “경제학의 범위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회장 연설을 했고, 이 연설문은 케인즈가 편집을 맡고 있던 학술지 *The Economic Journal* 1938년 9월호에 실린다.

는 며칠 후 답장을 보냈고, 케인즈는 7월 16일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낸다.

1. 1938년 7월 4일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케인즈는 편지의 도입 부분에서 해로드의 논문 『경제학의 범위와 방법』(Scope and Method of Economics, 이하 SME) 중 “3절과 4절은 아주 좋아서 시비를 걸 게 없다”고 높게 평가한다(Keynes, 1938a, p. 295).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선택한 영역 내의 세부 사항 및 접근 방식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그가 연구 “영역을 올바르게 선택하거나 계획했는지는 확신이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Keynes, 1938a, p. 296). 이 진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로드의 논문을 간략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해로드의 SME와 케인즈의 반응

해로드의 SME는 전통 경제학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경제학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 즉 ‘처방적 기능’과 ‘예측적 기능’으로 나누고, 각각의 현주소를 평가하며 미래를 제안하는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해로드는 1절 ‘경제적 기준’에서 경제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정책 처방’으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이 ‘처방’의 유일한 ‘기준’은 개인의 선호 만족이며, 정책이 이 기준에 얼마나 적합한지 여부는 시장을 효율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으로 묘사하는 이상적 모델, 즉 ‘분석적 지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Harrod, 1938b, pp. 389-397). 2절 ‘가치와 분배 이론’에서는 전통 이론이 예측력이 없는 공허한 틀, 즉 ‘빈 양식의 방정식’(blank forms of equations)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이 방정식들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해 줄 경험적 기반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보편적 경험의 기반인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는 방향성만 알려줄 뿐,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양적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데, 이론의 예측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량 데이터를 통해 빈칸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Harrod, 1938b, pp. 397-402). 3절 ‘동태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이 정태적 분석을 넘어, 인구·저축·기술 등의 변화에 따른 성장의 경로를 연구하는 동태 경제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Harrod, 1938b, pp. 402-405). 4절 ‘경험적 연구’에서는 경제학의 미래가 연역적 이론을 넘

어 통계 및 관찰을 통해 새로운 인과 법칙을 발견하는 경험적 연구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Harrod, 1938b, pp. 405-411).

해로드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 ‘경제학의 범위’(scope of economics)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을 다루어야 하며 사회에 대해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경계선을 뜻한다(Harrod, 1938b, p. 386). 그가 이 주제를 다룬 것은 당시 로빈스가 『경제과학의 본성 및 의의』(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를 통해 경제학의 범위를 ‘가치중립적인 실증과학’으로 제한한 것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Harrod, 1938b, pp. 388-389).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그는 경제학에 처방적 역할 및 동태적 분석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제학의 ‘범위’를 넓히려 했다. 즉, 경제학은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어떤 정책이 더 나은지를 판단하고 조언하는 규범적·처방적 역할을 포함해야 하고, 정태적 균형 분석에서 한 단계 도약해 경제성장 및 변화를 다루는 동태적 분석까지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Harrod, 1938b, p. 387, p. 401).

케인즈가 SME의 3절과 4절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한 이유는, 이 두 절이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학의 미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경제학이 과거의 정태적 균형 분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변화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분석과 현실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1절과 2절과 관련해 “선택한 영역 내의 세부 사항 및 접근 방식에 대체로 동의한다”(Keynes, 1938a, p. 296)고 말한 것은, 경제학의 범위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고 경제학자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처방’에 있음을 옹호한 것에 동의함을 뜻한다. 반면, “그 영역(terrain)을 올바르게 선택하거나 계획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Keynes, 1938a, p. 296)고 말한 것은 ‘경제학의 범위’ 설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2) ‘논리학’으로서의 경제학과 모델의 중요성

케인즈는 경제학이 자신에게는 “논리학의 한 분야, 즉 사고의 한 가지 방식(a branch of logic, a way of thinking)으로 보인다”며 해로드의 경우 “경제학을 유사 자연과학(a pseudo-natural-science)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충분히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Keynes, 1938a, p. 296). 그는 이어서 “공리와 격률(axioms and maxims)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꽤 가치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새롭고 향상된 모델을 고안하는 것 없이는 멀리 나아갈 수 없다”는 주장을 덧붙인다(Keynes, 1938a, p.296). 그리고 “경제학의 진보는 거의 전적으로 모델 선택의 점진적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SME의 표현을 인용해 “우리 시스템의 실제 작동에 대한 기민한 관찰(a vigilant observa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Keynes, 1938a, p.296). 그는 여기에 더해 앞선 경제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한다. 아서 피구(Arthur Pigou) 등 후기 고전학파는 “너무 단순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모델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진보가 모델의 개선에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마셜은 “모델을 고안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높이려는 욕구 및 간결하고 추상적인 윤곽에 대한 불필요한 힘으로 인해 자신의 모델들을 종종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Keynes, 1938a, pp.296).

케인즈는 이어지는 문단에서 모델 속 “변수들에 실제 값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모델은 일반성과 사고방식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모델로서의 유용성”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한다(Keynes, 1938a, p.296). 이는 해로드가 SME에서 펼쳤던 주장, 곧 계량 데이터를 통해 빈칸을 채우는 작업을 통해 이론의 예측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통계적 연구의 목표는 예측을 위해 빠진 변수들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현실 적합성(relevance) 및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하는 것”이라는 케인즈의 이어지는 문장은 이러한 판단을 강화한다(Keynes, 1938a, p.296).

3) 경제학의 첫 번째 정의와 특성

케인즈는 이어서 경제학의 고유한 정의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경제학은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a science of thinking in terms of models)”을 “현재 세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the art of choosing models which are relevant to the contemporary world)”와 결합한 학문이다(Keynes, 1938a, p.296). 이때,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이라는 표현은 ‘경제학을 논리학의 한 분야, 즉 특정한 사고 방식’이라거나 ‘공리나 격률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앞의 진술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것은 “현재 세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라는 진술인데, 케인즈는 이와 관련해 “모델의 적용 대상”인 경제 현상이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과 달리,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Keynes,

1938a, p. 296). 이때, 케인즈가 현재 세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역량을 ‘과학’이 아닌 ‘기예’라고 표현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는 과학과는 다른 차원의 지적 활동이자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²⁾.

케인즈는 이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모델’의 진정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진술한다. 그에 의하면, “모델의 목적은 일시적이거나 변동하는(transitory or fluctuating) 요인들로부터 반영구적이거나 비교적 일정한 요인들(the semi-permanent or relatively constant factors)을 구분해 떼어냄으로써, 일시적이거나 변동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a logical way of thinking)을 발전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그 요인들이 야기하는 시간적 연쇄(the time sequences)를 이해하는 데 있다”(Keynes, 1938a, p. 296-297).

4)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좋은 경제학자’

케인즈는 뒤를 이어 “좋은 모델(good models)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민한 관찰(vigilant observation)을 사용하는 재능이 요구”된다고 말한다(Keynes, 1938a, p. 297). 그는 이런 재능은 “고도로 전문화된 지적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매우 최소한 재능”이라며, “좋은 경제학자(good economists)가 드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Keynes, 1938a, p. 297). 여기에서는 케인즈가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를 ‘좋은 경제학자’의 핵심 덕목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좋은 경제학자’의 구체적 덕목들은 뒤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5) 도덕과학으로서의 경제학

케인즈는 이어지는 문단에서 “로빈스의 견해와 달리,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자연과학이 아니라 도덕과학(moral science)”이라며, 경제학의 새로운 정의를 추가한다(Keynes, 1938a, p. 297). 이는 “경제학이 내성(內省: introspection)과 가치판단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 두 도구는 경제학을 객관적 사물만을 다루는 자연과학

2) ‘art’는 일반적으로 ‘기술’이나 ‘예술’로 번역된다. ‘기술’(technique/skill)은 통상 정해진 절차나 방법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여기에서의 ‘art’는 현실에 대한 기민한 관찰과 꾸준한 지적 수련을 통해 체화된 고도의 판단력 및 창조성을 포함한다. 이를 고려해, 이 논문에서는 기술과 예술을 모두 포괄하는 ‘기예’(技藝)로 번역했다.

과 근본적으로 구별 짓는 근거가 된다(Keynes, 1938a, p. 297). ‘내성’³⁾은 경제학자가 자신의 생각·동기·감정을 들여다봄으로써 연구 대상인 다른 경제 주체들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자연과학자는 원자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경제학자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응시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치판단’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자 경제학자가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의 렌즈’ 역할을 담당한다.

2. 1938년 7월 6일에 보낸 로이 해로드의 답장

해로드는 케인즈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경제학 방법론의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해서는 다른 입장이 드러나는 답장을 보낸다. 그는 케인즈가 제기한 두 가지 쟁점, 즉 ‘얕은 이론에 기반한 계량 분석의 문제점’과 ‘이론 없는 통계의 맹목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그는 케인즈의 비판이 자칫 모든 종류의 계량적·통계적 접근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첫째, 이론은 ‘개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계량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케인즈가 모델의 논리 및 ‘사고의 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해로드는 모델의 타당성이 계량 분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는 케인즈의 ‘승수’를 예로 들어, 그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며, 비록 그 값이 변할지라도 계량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arrod, 1938a, pp. 297-298). 둘째, 해로드는 케인즈가 명시적으로 비판했던 틸버겐의 작업이 모델 안에서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옹호한다(Harrod, 1938a, p. 298)⁴⁾. 셋째, 케인즈가 경제학의 ‘유사 자연과학화’를 경계하며 계량 분석의 함정을 경고하는 데 집중했다면, 해로드

3) introspection은 라틴어 introspicere(‘안을 들여다보다’)에서 유래하며, 이때의 주된 행위는 관찰(Observation)이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1차적인 과정으로, 케인즈는 경제학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동기, 기대, 공포, 탐욕 등—을 관찰하고 파악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내성은 ‘자기 성찰’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중요한 학문적 방법론으로 여겨졌다.

4) 가령, 투자 결정 시 이자율보다 자본의 한계효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면, 이는 우리의 판단을 정교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Harrod, 1938a, p. 298).

는 계량 분석이 제공하는 통계적 반증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론가 스스로가 “손을 더럽히며” 통계 작업에 직접 뛰어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분석 결과를 자신의 이론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Harrod, 1938a, p. 298).

3. 1938년 7월 16일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케인즈는 해로드의 답장을 받고 7월 16일자 회신을 보낸다. 그는 이 회신에서 먼저 계량 분석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도 분석 작업의 목적은 특정한 값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규모의 상대적 크기(the order of magnitude)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이론을 검증하는 데 있다며 7월 4일자 편지의 논지를 고수한다(Keynes, 1938b, p. 299).

케인즈는 이처럼 계량 분석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경제학의 모델 사용 방법이 자연과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에서 모델을 사용하는 목적은 “방정식이나 공식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량과 요인들의 실제 값을 채워 넣는 것”(Keynes, 1938b, p. 299)이고, 이렇게 완성된 공식은 영원히 유효하다. 반면, 경제학의 연구 대상인 인간 사회는 기대·심리·제도 등의 변화로 인해 끊임없이 변하며, 과거 데이터로 계산된 값은 “다음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게 분명한 숫자”일 뿐이다(Keynes, 1938b, p. 299).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경제학 모델을 특정 숫자로 고정된 “정량적인 공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고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파괴하는 행위”(Keynes, 1938b, p. 299)가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정량적인 공식을 자연법칙과 같은 불변의 진리로 오인하고 그 공식의 기반이 된 인간의 심리나 제도가 변했다는 현실을 간과하게 만든다⁵⁾.

5) 물리학자는 물체가 떨어지는 거리(s)를 계산하기 위해 중력가속도(g) 값 $g = 9.8m/s^2$ 을 모델에 채워 넣는데, 이 값은 어제 떨어뜨린 사과나 100년 후의 깃털에나 영원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경제학자가 본원통화(B)에 통화승수($1/r$)를 곱해 최종적인 통화량(M)이 산출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제도적인 지급준비율(r)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공포나 기대와 같은 심리적 변화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줄이거나 가계가 현금을 쌓아두면, 실제 통화 창출량은 모델의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관찰값은 다음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숫자가 되고 만다.

1)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는 익숙하지 않은 관행

케인즈는 이어지는 문단에서 모델을 고정된 예측 공식으로 만들려는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art of thinking in terms of models)가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실천”이라는 점에서 찾고, “물리학과와 그릇된 유비(pseudo-analogy)는 경제학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적 습관(habit of mind)과 직접적으로 반대된다”고 주장한다(Keynes, 1938b, p. 300). 즉, 경제학의 올바른 방법은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인데, 이것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실천이어서 모델을 고정된 예측 공식으로 만들려는 더 쉽고 익숙해 보이는 잘못된 길, 곧 ‘물리학과와 그릇된 유비’에 경제학자들이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2) 경제학의 본질: 내성, 가치판단, 동기, 기대, 심리적 불확실성을 다루는 ‘도덕과학’

케인즈는 이어서 “경제학이 도덕과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제학이 내성과 가치를 다룬다”는 특징에 더해 “동기·기대·심리적 불확실성을 다룬다”는 점도 덧붙일 수 있다고 말한다(Keynes, 1938b, p. 300). 케인즈가 7월 4일자 편지에서 ‘도덕과학’을 처음 언급했을 때와, 이 7월 16일자 편지에서 다시 언급할 때는 강조점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도덕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내성 및 가치판단을 사용한다는 주목했다. 이는 경제학을 가치중립적인 유사 자연과학으로 만들려 했던 로빈스를 반박하면서, 경제학자의 주관적 판단과 윤리적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내성 및 가치판단에 동기·기대·심리적 불확실성을 추가해 외연을 확장하고 그 의미를 심화한다.

케인즈는 이제 ‘도덕과학’의 근거를 경제학자 자신의 주관성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인 경제 주체들 자신의 내면세계로까지 확장하고, “연구 대상을 일정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Keynes, 1938b, p. 300)며 경제학을 물리학과 유사한 과학으로 취급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밝힌다. 이를 위해 그는 이러한 시도는 “마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사과의 동기, 땅에 떨어질 가치가 있는지, 땅이 사과가 떨어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사과의 잘못된 계산에 달려 있는 것”(Keynes, 1938b, p. 300)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3) 이론가의 자세: 깔끔하지 않은 현실과의 부단한 접촉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이처럼 복잡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면, 깔끔하지 않은 현실 데이터를 굳이 다루는 대신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추상적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로빈스로 대표되는 당대 경제학의 흐름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도 이러한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케인즈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나 당신이 말한 대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주저하지 말”(Keynes, 1938b, p. 300) 라며,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유혹이 경제학을 퇴보시키는 길임을 환기시킨다. “모델 제작의 전문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델이 적용되어야 할 지저분한 사실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Keynes, 1938b, p. 300).

III. 케인즈의 『확률론』 및 관련 저작 검토

케인즈가 1938년 로이 해로드에게 보낸 두 통의 짧은 편지에는 경제학의 본질 및 방법에 관한 그의 생각이 압축되어 있다. 그는 경제학을 ‘유사 자연과학’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경계하며, 경제학이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과 현재 세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의 결합’이자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이며 “본질적으로 도덕과학(a moral science)”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케인즈 방법론의 핵심을 이루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과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는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 및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와 어떻게 다른지, ‘경제학이 본질적으로 도덕과학’이라는 진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케인즈가 1921년에 출간한 TP는 확률의 논리적 기초에 관한 체계적인 탐구로서, 편지의 주요 주장들을 TP 고유의 인식론적 메커니즘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최적의 텍스트이다⁶⁾.

6) TP를 철학적·방법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O'Donnell (1989) 과 Carabelli (2021) 가 있다. 국내의 관련 연구로는 김균(2002) 과 권기철(2002) 을 볼 것.

1. TP의 경제학 방법론 관련 핵심 논의

TP 1장에서는 확률 이론의 기본 개념을 제시한다. 확률은 명제들 사이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관계로 정의되는데, 이는 확률이 한 명제(전제 h)가 다른 명제(결론 a)에 대해 갖는 합리적 믿음(rational belief)의 정도를 나타냄을 뜻한다(Keynes, 1921, p. 4). 확률은 명제 자체의 속성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지식 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Keynes, 1921, p. 7)⁷⁾. 이때, 확률은 우리의 지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이지만, 일단 전제(지식)가 주어지면 그로부터 도출되는 합리적 믿음의 정도는 개인의 변덕이나 심리적 성향과 무관하게 고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Keynes, 1921, p. 4). 전제 h가 주어졌을 때 결론 a가 갖는 확률-관계의 정도 α 는 $a/h = \alpha$ 로 표기된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론적 질문은 ‘수많은 사실 중 무엇을 전제(h)로 선택할 것인가’이다. 케인즈는 이를 ‘적합성(relevance)’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TP의 체계에서 특정 증거(h1)가 결론(a)에 대해 ‘적합한(relevant)’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확률값에 변화를 주거나 혹은 확률값의 변화가 없더라도 ‘논증의 무게’를 더해줄 수 있어야 한다(Keynes, 1921, p. 71). 즉, ‘적합성’은 어떤 파편화된 지식이 인식론적 가치를 지닌 유의미한 전제(h)로 격상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차적 척도가 된다. 이러한 TP의 ‘적합성’ 논의는 단순히 통계적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의 어떤 측면을 이론적 틀 내부로 끌어들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선택의 문제를 다룬다⁸⁾.

TP 2장에서는 확률을 인식론(Epistemology)의 틀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 합리적 믿음, 지식, 1차 명제와 2차 명제, 직접적 지식과 간접적 지식 등의 개념에 주목한다. 합리적 믿음은 증거에 의해 정당화된 믿음으로, 그중 가장 높은 등급인 ‘확실한 합리적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knowledge)과 동일한 개념이다(Keynes, 1921, p. 10). 1차 명제(primary propositions)는 확률적 믿음의 대상이

7) ‘명제 b는 확률적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명제 b는 크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Keynes, 1921, p. 6). 확률은 반드시 특정 전제(지식)에 대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므로, 어떤 지식에 근거한 확률인지를 명시해야만 의미를 갖는다(Keynes, 1921, pp. 6-7).

8) ‘증거의 적합성’ 개념은 1938년 편지의 핵심 명제인 “현재 세상에 적합한(relevant)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의 인식론적 모태가 된다.

되는 명제(p)를, 2차 명제는 확률-관계 자체를 주장하는 명제(‘명제 p는 전제 h에 대해 α 의 확률-관계를 갖는다’)를 뜻한다(Keynes, 1921, p. 11). 우리는 2차 명제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1차 명제에 대한 ‘확률적 믿음’을 정당화한다(Keynes, 1921, p. 11)⁹⁾.

케인즈는 이때, 지식 그 자체와 지식의 원천이 되는 ‘직접적 친숙’(direct acquaintance)을 구분한다. 직접적 친숙은 자신의 감각을 겪는 ‘경험’, 관념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 그리고 감각 데이터나 의미들 사이의 사실이나 관계를 포착하는 ‘지각’(perception)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Keynes, 1921, p. 12). 이러한 직접적 친숙을 통해 우리는 별도의 논증 없이 즉각적으로 참임을 아는 ‘직접적 지식’을 얻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직접적 지식을 전제로 삼아 논증(argument)을 통해 도출된 지식을 ‘간접적 지식’이라 부르며, 확률 이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간접적 지식’의 논리적 영역을 다룬다(Keynes, 1921, pp. 12-13). 특히 경제학적 모델을 통해 획득되는 간접적 지식은 단순한 논리적 귀결을 넘어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Carabelli (2021, pp. 39-40)가 지적하듯 케인즈적 세계는 독립적 요소들의 선형적 결합이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들로 얽힌 ‘복잡한 전체’(complex whole)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시스템 전체의 귀결을 다루는 간접적 지식은, 파편화된 직접적 지식들을 모델이라는 논리적 장치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시스템의 총체적 작동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산출되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간접적 지식’의 층위를 형성한다^{10) 11)}.

9) “내가 지금 100억 원을 들여 지은 반도체 공장은 5년 뒤에 20%의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진술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로, 참인지 거짓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단지 믿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1차 명제이다.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 및 시장 점유율(h)을 고려할 때, ‘이 공장이 20%의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명제(a)가 갖는 확률(합리적 믿음의 정도)은 α 이다.”라는 진술은 2차 명제이다. 기업가는 1차 명제가 참인지 직접 알 수 없으며, 대신, 그는 자신이 가진 정보(h)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명제(a) 사이의 논리적 관계(2차 명제)를 검토한다. 케인즈에 따르면 기업가는 이 2차 명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1차 명제에 대한 ‘합리적 믿음’을 형성하고 투자를 단행한다.

10) 이러한 인식론적 확장은 확률 이론이나 경제 모델이 단순히 파편화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체계적인 이론적 설명으로 정교화하며 사고의 범위를 거시적으로 넓히는 기능을 담당함을 시사한다.

11) 직접적 지식과 간접적 지식의 의미는 소비 및 승수효과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접적 지식’의 사례로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리지만, 소득이 늘어난 만큼 전부 다 소비하지는 않는다.”는 근본적인 심리 법칙(Keynes, 1936, p. 96)에 대한 인식을 들

그런데 모든 지식의 정당화를 오직 다른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논증’에만 의존할 경우, 지식 체계는 ‘증명의 무한퇴행’이라는 논리적 늪에 빠지게 된다.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다시 또 다른 근거에 의한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 과정이 끝없이 되풀이된다면 최초의 명제는 결코 최종적인 확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직관적 능력에 기반한 ‘직접적 지식’을 도입함으로써 증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논리적 보루를 마련한다(Keynes, 1921, p. 15). 이 지점에서 ‘직관’(intuition)은 두 가지 인식론적 층위에서 작동하며 지식의 기초를 형성한다. 첫째는 ‘명제적 직관’으로, 이는 감각이나 경험을 통해 증명 불가능한 기초적 전제(h) 자체를 발견하는 기능이다(Keynes, 1921, p. 12). 이는 복잡한 논증 이전에 우리가 현실과 맺는 ‘직접적 친숙’을 통해 얻는 앎의 단계다¹²⁾ (Keynes, 1921, p. 12). 둘째는 ‘관계적 직관’으로, 이는 전제(h)와 결론(a) 사이의 논리적 연결 고리인 확률-관계를 지각하는 기능이다(Keynes, 1921, pp. 13-14). 케인즈는 우리가 전제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논리적 이행’ 그 자체를 마음이 직접 ‘보고’(直觀) 알아차려야 하는 직접적 지식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연결 고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논증이 필요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Keynes, 1921, p. 15)¹³⁾.

TP의 3장에서는 모든 확률이 0과 1 사이의 수치로 측정 가능하다는 통계적 빈도설의 믿음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우선, 확률은 많은 경우 수치화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Keynes, 1921, p. 21)¹⁴⁾. 둘째, 모든 확률을 하나의 선형적인 크기 순서

수 있다. 이는 복잡한 계산 이전에 우리가 인간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거나 직관함으로써 얻는 직접적 친숙에 기초한 파편화된 직접적 지식으로, 모델의 ‘전제’(h)가 되는 부분이다. 반면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간접적 지식의 사례로는 “정부가 1조 원을 지출하면, 연쇄적인 소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소득은 5조 원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앎을 들 수 있다. 이는 심리적 법칙(직접적 지식)을 전제로 삼아 수학적·논리적 인과관계를 거쳐 도출된 지식으로, 파편화된 개별 행동의 관찰을 넘어 경제 시스템 전체의 유기적 귀결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12) 케인즈가 1938년 편지에서 “지저분한 사실들과의 긴밀한 친숙”을 강조했던 것은 TP에서 정립한 ‘직접적 친숙’ 개념을 경제학이라는 실천적 영역에 구체적으로 투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모델 제작자가 손을 더럽히며 사실들과 접촉해야 하는 이유는, 모델의 기초가 되는 전제(h)가 실제 현실에 대한 직접적 친숙에서 기인해야만 그 모델이 현실적 적합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 ‘명제적 직관’ 및 ‘관계적 직관’이라는 용어는 TP 2장의 ‘명제에 대한 직접적 지식’ 및 ‘관계에 대한 직접적 지식’의 구분에 근거한 것이다(Keynes, 1921, pp. 12-15).

14)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보험업자가 통계에 근거해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확률이 수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편의를 위해 특정 수치보다 크

로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확률 사이에는 부등호나 등호의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케인즈는 이를 ‘비교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이라고 지칭한다(Keynes, 1921, p. 21). 셋째, 확률은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독립적인 ‘순서화된 계열’ 위에 존재하며, 그로 인해 동일한 계열 내에서는 크기 비교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계열에 속한 확률들은 색깔이나 유사성처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Keynes, 1921, pp. 30-31),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만 수치적 연산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Keynes, 1921, p. 37). 케인즈는 확률 측정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직관(intui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확률은 수학적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를 ‘지각’하는 직관적 능력에 의존한다(Keynes, 1921, p. 26).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는 확률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 논리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TP 6장에서 확률과는 독립적인 지식의 두 번째 속성으로 ‘논증의 무게’(weight of arguments)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확률이 주어진 전제하에서 결론에 대해 부여하는 합리적 믿음의 정도라면 논증의 무게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관련 증거의 총량’을 의미한다(Keynes, 1921, p. 77). 새로운 증거가 추가될 때 확률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 논증의 무게는 항상 증가한다(Keynes, 1921, p. 77). 이때, 논증의 무게는 우리가 가진 증거의 ‘양’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결론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Keynes, 1921, p. 77). 즉, 논증의 무게는 우리가 결론에 대해 부여하는 ‘신뢰의 정도’ 혹은 ‘판단의 근거가 얼마나 두터운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Keynes, 1921, p. 82). 케인즈는 확률은 우리의 무지에 기반하지만, 논증의 무게는 우리의 지식에 기반한다고 설명한다.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무차별의 원리’에 의해 확률을 1/2로 잡을 수 있지만, 이때의 논증의 무게는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반면 수많은 실험 끝에 얻은 1/2의 확률은 매우 높은 논증의 무게를 갖는다(Keynes, 1921, p. 82).

거나 작다는 ‘제한적 판단’을 내리는 것일 뿐이다(Keynes, 1921, pp. 23-24).

2. TP에 대한 철학적·방법론적 해석

로드 오도넬(Rod O'Donnell)과 안나 카라벨리(Anna Carabelli)는 케인즈 방법론의 핵심이 ‘경험’이 아닌 ‘직관’에 기반한 ‘합리주의’에 있으며, 이는 수학적 ‘정밀성’(precision)의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 ‘합리성’, 곧 분별력(reasonableness)을 추구하는 ‘비증명적 논리’(non-demonstrative logic)임을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학의 재료는 본질적으로 ‘부정확하고’ ‘유기적으로 상호의존적’이기에 ‘내재적 통약불가능성’을 갖는다(O'Donnell, 1989; Carabelli, 2021). 특히 이들의 지식 이론(epistemology)에 대한 분석은, 케인즈의 ‘모델’ 개념이 단순한 ‘사고의 도구’를 넘어 어떤 인식론적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그 모델이 어떻게 유용한 지식을 산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1) 로드 오도넬의 논리

오도넬은 케인즈가 ‘케임브리지 합리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합리주의자이자 직관주의자로, 그의 논리학에는 ‘인식론’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O'Donnell, 1989, p. 81). 오도넬은 케인즈의 합리주의가 ‘경험’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경험은 지식을 ‘촉발하고 야기하는’ 원인), 그것만으로는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본다는 점을 강조한다(O'Donnell, 1989, p. 100). 그는 케인즈가 귀납의 순환 논리를 피하기 위해, 경험 이전에 ‘직관’을 통해 파악되는 ‘종합적 선험적 진리(synthetic a priori truths)’의 존재를 가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O'Donnell, 1989, p. 94). ‘종합적 선험적 진리’란, 세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종합적)를 담고 있으면서도 경험과 무관하게 이성으로 파악되는(선험적) 명제를 의미한다. 오도넬은 그 핵심 사례로 ‘제한된 독립적 다양성의 원리(principle of limited independent variety)’(O'Donnell, 1989, p. 97)를 드는데¹⁵⁾, 이는 GT의 “근본적인 심리 법칙”(Keynes, 1936, p. 96)과 같은 경제학 모델의 핵심 공리들을 이러한 ‘종합적 선험적

15) 우주의 속성이 유한한 수의 근본 속성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이 없다면(즉, 우주가 무한히 다양하다면), 가령 과거에 백조가 하얗게 보였더라도(귀납), 앞으로도 백조가 하얗다는 결론이 항상 참이라는 보장은 없다. 우주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선험적으로 ‘직관’할 때만, 귀납적 경험이 미래에 대한 유의미한 확률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Keynes, 1921, pp. 279-294).

험적 진리'의 경제학적 사례로 볼 가능성을 열어준다.

오도넬에 따르면, 이러한 '종합적 선험적 진리'는 수학적 '증명'을 통해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직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파악되며(O'Donnell, 1989, p. 95), 일단 파악된 후에는 '설득'(persuasion), 체계 전체의 '일관성'(coherence),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해진다는 '필연성'에 대한 논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당화된다고(O'Donnell, 1989, p. 92). 이러한 '귀납'의 문제는 경제학 방법론의 중요한 문제로 연결된다. 경제학(특히 계량경제학)이 과거의 데이터(경험)를 미래로 일반화하는 '귀납'에 의존하는 한, 그 방법론의 합리성은 '소비 심리 법칙'이나 '제한된 독립적 다양성의 원칙'과 같은 '선험적 종합적 진리'를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받아들이는 '직관'적 행위에 궁극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학적 추론은 연구 대상의 본질에 대한 선험적·직관적·종합적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며,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논리·직관·경험적 지식의 융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오도넬은 케인즈가 경제학을 본질적으로 '부정확한 과학'(inexact science)으로 보았으며, 그 이유를 연구 대상의 특성에서 찾는다. 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불규칙하고, 측정과 비교가 어려우며, 상호의존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에 적합한 수학적 방법론은 경제학에서 제한된 용도만을 가지며, 경제학은 필연적으로 상당 부분 직관과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도넬은 케인즈의 진술을 인용해, 경제학의 표현은 '준형식적'(quasi-formal) 스타일을 띠며, 관련된 아이디어의 전체 묶음을 제안하려는 의도의 '예시적 진술'(sample statement)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이 아님을 강조한다¹⁶⁾(O'Donnell, 1989, p. 162).

2) 안나 카라벨리의 논의

카라벨리에 따르면, TP는 단순히 불확실한 사건에 수치를 부여하는 계산에 관한 저술이 아니라, 경제학의 도덕과학적 성격을 크게 강화할 핵심적인 '논리적 형식'을 규정하는 저작이다. 케인즈에게 확률은 논리적 성격을 지니되 연역적 필연성과는

16) “나는 경제적 표현의 본질적 성격이 완전한 진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의 '예시적 진술'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관련된 일련의 연관된 사고의 전체 묶음을 암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Keynes, 1934, pp. 469-470).

구별되는 ‘비증명적 논리’의 범주에 속한다(Carabelli, 2021, p. 14). 이는 형식적 증명을 통해 결론을 강제하는 전통적 연역 논리와 달리, 제한되고 불완전한 지식 조건 하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지를 규율하는 추론 형식이다. 카라벨리는 이 비증명적 논리가 “틀림없는 답을 산출하는 기계나 맹목적인 조작법이 아니라, 특정 문제들을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사고하기 위한 방법”임을 강조한다(Keynes, 1936, p. 297; Carabelli, 2021, pp. 153-154).

카라벨리는 비증명적 논리가 직관 및 직접적 판단으로 구성된 정교한 인식 메커니즘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직관은 모든 논리적 추론의 시원(始原)으로서, 방대하고 파편화된 직접적 지식들 가운데 무엇이 특정 논증의 유의미한 전제(h)가 될 수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증거의 적합성’ 판단을 수행한다(Carabelli, 2021, p. 15)¹⁷⁾. 이는 기하학적 형태를 인지하듯 논리적 연관성을 직접 지각하는 과정이며, 이 지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확률적 추론도 시작될 수 없다. 이러한 직관적 기초 위에서 형성되는 직접적 판단은 확률적 개연성, 논증의 무게, 가치 지향성이 결합된 상태에서 상황 전체를 조망하는 실천적 판단의 최종 형태이다(Carabelli, 2021, pp. 40-41). 특히 증거들 사이의 비대칭성을 유발할 근거가 없을 때 각 가능성에 동일한 비중을 두는 ‘무차별성(indifference)의 원리’는 이러한 판단이 임의적 추측이 아닌 논리적 평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결국 직관이 판단을 가능케 하는 인식적 토대라면, 직접적 판단은 비가역적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비증명적 논리의 실천적 귀결이다(Carabelli, 2021, p. 15).

케인즈가 이러한 독특한 논리와 판단 형식을 구축한 이유는 그가 바라보는 현실의 객관적·구조적 성격에 기인한다. 카라벨리는 케인즈적 세계가 독립적 요소들의 선형적 결합이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들로 얽힌 ‘복잡한 전체’임을 지적한다¹⁸⁾(Carabelli, 2021, pp. 39-40). 이러한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을 동반하는데, 이는 서로 이질적인 가치와 증거들이 단일한

17) 경제학자가 직관을 통해 적합한(relevant) 전제를 선별하는 과정은 모델이 현실의 유기적 구조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간접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 공사가 된다.

18) 이러한 세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모델을 통해 도출되는 간접적 지식은 단순한 수치적 합산이 아니라 시스템의 유기적 연관성을 포착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계량 척도나 공통의 화폐 단위로 환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근본적 불확실성은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나 계산상의 난점이 아니라, 미래 상태에 대한 확률분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본질적 속성으로 드러난다(Carabelli, 2021, p. 46). 현실이 이처럼 복잡하고 통약불가능하게 구조화되어 있기에, 경제 주체들은 서로 충돌하는 도덕적 주장과 상반된 근거들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비극적 합리적 딜레마’(tragic rational dilemmas)에 끊임없이 직면한다(Carabelli, 2021, p. 5). 따라서 경제학의 과제는 단순한 계량적 예측을 넘어,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고 정당화할 것인가라는 ‘측정과 비교의 철학’으로 이행하게 된다.

대상이 지닌 불확실성과 통약불가능성을 승인한다면, 이를 다루는 합리성의 기준 또한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카라벨리는 케인즈가 신고전학파의 기계적 합리성(rationality)을 거부하고, 이를 분별력(reasonableness)으로 전환했음에 주목한다(Carabelli, 2021, pp. 13-16). 케인즈적 분별력은 연역적 정합성이나 계산적 최적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인식 조건 속에서 얼마나 질서 있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¹⁹⁾에 상응하는 ‘조건부 합리성’(contingent rationality)으로, 수학적 정밀성만을 고집하여 현실의 본질을 왜곡하는 태도를 오히려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Carabelli, 2021, p. 16). 판단의 합리성은 사후적인 결과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가용한 증거와 논리적 형식을 통해 판단 과정이 얼마나 적절하게 조직되었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합리성의 이러한 재구성은 불확실성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논리적 사고의 출발점으로 수용하려는 방법론적 결단이다.

카라벨리는 경제학이 도덕과학으로 성립하려면 판단의 논리 형식 안에 규범적 지향이 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비증명적 논리가 정당화하는 것은 연역적

19) 프로네시스(Phronesis)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체계 내에서 누스(Nous), 에피스테메(Episteme)와 더불어 지성의 세 가지 유형을 구성한다. 누스는 직관적 지성으로, 논증이나 증명 없이 제 1 원리나 본질을 즉시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는 인식의 근본이자 철학적 이해의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에피스테메는 논리적 증명과 검증에 의해 획득된 과학적·체계적 지식을 의미한다. 이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지향한다. 프로네시스는 실천적 지혜로서, 도덕적·실천적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이는 이론적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도덕적 탁월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세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의 덕’으로서, 인식론과 윤리학의 핵심을 이루며 서로 보완적 관계를 맺는다(Educational Renaissance, 2024).

필연성이 아니라, 주어진 증거와 인식 조건 아래에서 판단이 얼마나 분별력 있게 구성되었는가에 관한 실천적 정당성이다(Carabelli, 2021, pp. 153-154). 이 점에서 확률론은 가치중립적 사실판단 기법이라기보다, 무엇이 ‘옳게’ 행해져야 하는가를 구성하는 판단 형식과 결합해 있으며, 그 결합은 규범적 지향을 외부에서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 구조 내부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Carabelli, 2021, p. 14, p. 42). 그녀가 케인즈를 “도덕과학자(moral scientist)”로 위치시키며 경제학과 화폐를 “좋은(goodness)과 행복(happiness)에 도달하기 위한 물질적 수단이자 선행조건”으로 요약하는 것도 이 연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Carabelli, 2021, pp. 9-10). 더 나아가 ‘좋은 삶’(good life)은 단순한 안락이 아니라 비극적 차원을 포함하는 행복으로 재정의되며, 경제학은 그 행복이 가능하기 위한 물질적·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과업과 연결된다(Carabelli, 2021, p. 112). 따라서 확률론에서 규범적 지향을 제거하면 ‘올바른 행위/정책’을 구성하는 판단 형식 자체가 훼손된다(Carabelli, 2021, p. 14, p. 42).

도덕과학의 이러한 방법론은 ‘정밀성(precision)’의 과잉을 경계하고 ‘정확성(exactness)’을 지향하는 선택으로 귀결된다. 카라벨리에 따르면 분별력은 ‘수학적 정밀성’을 포기하는 대신,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는 ‘인식론적 정확성’을 목표로 한다(Carabelli, 2021, p. 6). 케인즈에게 경제학은 수학을 맹목적으로 적용해 ‘정밀하게 틀리는’ 학문이 아니라, 일상 언어와 직관, 직접적 판단을 통해 ‘대략적으로라도 옳은’(roughly right) 진실에 접근하려는 실천적 지식의 형식이기 때문이다(Carabelli, 2021, p. 6). 따라서 케인즈가 경제학을 형식적으로 ‘부정확한’ 학문으로 설정한 것은 과학적 엄밀성의 포기가 아니라, 복잡하고 모순적인 현실에 내용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다가가기 위해 의도한 방법론적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V. 『인물평전』 검토

1938년 편지의 이해를 돕는 케인즈의 또 다른 저작으로는 그가 위대한 학자들의 삶과 학문을 분석하며 남긴 기록인 EB를 들 수 있다. 이 평전은 케인즈가 자신의 방법론적 신념을 구체적인 인물의 삶 속에서 찾아내서 입증하고 옹호하는 기록물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학 방법론 및 경제학자의 모습을 그가 계승하고자 했던 스승(맬서스, 마셜)과 그가 상찬한 인물(램지, 뉴턴)의 초상화를 통해 그려낸다. 이들의 초상화를 통해, 우리는 케인즈의 추상적 원칙들에 삶과 피를 부여하고, 그가 꿈꿨던 진정한 경제학의 비전을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음미할 수 있게 된다.

1.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²⁰⁾

1) 모델로서의 ‘인구론’

케인즈는 맬서스의 『인구론』(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젊은 천재가 쓴 역작”이라고 높이 평가한다(Keynes, 1933, p. 86). 케인즈에 따르면, 이 저작의 진정한 중요성은 “그가 제시한 사실들의 새로움이 아니라, 그 사실들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단순한 일반화를 강력하게 강조한 것에 있다”(Keynes, 1933, p. 86).

이를 TP의 인식론적 틀로 재구성하면, 맬서스의 위대함은 개별적인 ‘사실’이라는 1차 명제의 수집을 넘어, 명제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규정하는 2차 명제의 체계를 구축한 데 있다. 맬서스 이전에도 인구 증가 경향과 식량 생산의 한계라는 ‘사실’ 자체는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파편화된 직접적 지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맬서스는 현실과의 직접적 친숙을 통해 확보된 이러한 전제(h)들로부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핵심적인 논리적 관계(a/h)를 직관적으로 포착해냈다. 이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사실들은 모델이라는 인식론적 장치 속으로 통합되며,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없는 사회의 장래라는 거시적이고 총

20) EB에 실린 『맬서스 평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맬서스의 서신들을 분석한 작업을 바탕으로 1922년에 발표되었다가 EB 출판을 앞두고 수정된 글이고, 2부는 맬서스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1935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행한 기념 연설(Centenary Allocution) 원고이다.

체적인 간접적 지식의 형태로 전환된다. 결국 맬서스는 단순한 현상 기록자가 아니라, 직관적 선택을 통해 전제를 포착하고 이를 명료한 이론적 모델로 재구성함으로써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의 원형을 제시한 것이다.

2)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와 ‘유사-과학(Pseudo-Science)’의 대립

맬서스는 리카도와의 서신 교환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분석의 주된 준거로 삼으려는 경향”이야말로 자신의 저작을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자, “최초의 미미한 실수가 진실에서 가장 먼 결론으로 이어지는” 오류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Keynes, 1933, p. 97-98).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는 모델의 기초가 되는 전제(h)를 현실의 ‘지저분한 사실들’로부터 포착해내려는 ‘모델 선택의 기예’를 강조한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장기적인 균형 상태에만 집중하는 리카도의 추상적 접근법은 현실의 “불규칙한 움직임”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국가의 부와 빈곤의 원인들” 자체를 생략함으로써 모델의 ‘관련성’ 및 ‘논증의 무게’를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류이다(Keynes, 1933, p. 97-98). 맬서스에게 단기적 변동은 장기적 균형으로 가는 과정의 잡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결정하는 경제 현상의 본질이었으며, 이를 포착하는 활동은 모델 제작자가 ‘직접적 친숙’을 통해 유의미한 전제(h)를 선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맬서스는 ‘실질임금 불변 가정’을 예로 들며, 현실에서는 “이윤만큼이나 가변적인” 실질임금을 불변량으로 취급한 모델의 결론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타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비판하는데(Keynes, 1933, p. 98), 이는 모델을 사고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결여된 고정된 공식으로 변질시키는 ‘유사-과학’적 태도를 겨냥한 것이다. 그는 현실 부합성을 결여한 전제들이 이후의 정교한 연역적 추론을 공허한 유희로 전락시킨다는 점을 케인즈에 앞서 일찍부터 통찰하고 있었다.

3) 이상적 경제학자의 길: ‘도덕과학’, ‘경험’, ‘형식적 사고’의 3단계 종합

케인즈는 맬서스 기념 연설²¹⁾에서 그가 “최초의 케임브리지 경제학자”이자 “일상 세계의 복잡한 혼돈에 형식적 사고의 틀을 적용한 위대한 선구자”였다고 상찬하며, 최선의 경로를 밟음으로써 위대한 경제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21) 이 연설문은 1935년 6월 *The Economic Journal*에 게재되었다.

(Keynes, 1935, p. 107). 이때 그가 밟은 경로는 세 단계로 묘사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맬서스는 ‘철학자’이자 ‘도덕과학자’로서의 출발했는데, 이때는 케임브리지 전통에서 성장하며 ‘정치철학자’의 ‘선험적 방법’을 사용했다²²⁾ (Keynes, 1935, p. 107).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순수 이론에서 벗어나 경제사 및 현재 세상의 사실들에 몰두하고 경험적 자료들을 축적하며 ‘역사적 귀납법’을 사용하였다 (Keynes, 1935, p. 107). 맬서스의 세 번째이자 최종 단계는 이전 두 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그는 “선험적 사고로 다시 돌아가”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경제학자의 순수 이론”을 구축하려 한다 (Keynes, 1935, p. 107). 이는 경제학 고유의 이론적 틀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덕철학적 원리를 경제 문제에 적용하려던 1단계의 방법에 비해 고차원의 작업이다. 3단계에서는 나아가 “사건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형식적 사고의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직관적 선택과 형식적 원리의 혼합”을 시도한다 (Keynes, 1935, p. 107).

4) 경험과 이론의 바람직한 관계

케인즈는 연설문에서 맬서스가 “경제학자에게 있어 경험과 이론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질문을 제기하고, “이론이나 이론가를 경멸하는 실천가”가 “가장 해로운 이론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에도 주목한다 (Keynes, 1935, p. 108). 맬서스에 의하면, “자신이 관찰한 사실들을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지식의 총량을 늘리고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제한된 경험”으로부터 성급하게 “일반적인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Keynes, 1935, p. 108). “부분적 경험은 올바른 이론의 기반이 될 수 없으며”, “올바른 이론은 일반적인 경험에만 기반한다”는 것이다 (Keynes, 1935, p. 108). 케인즈는 맬서스가 “심오한 경제적 직관”을 가졌고, “변화무쌍한 경험의 그림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견지하는 태도와 형식적 사고의 원리를 부단히 적용해서 그것들을 해석하려는 태도의 비범한 결합”을 보였으며, 연설을 마무리한다 (Keynes, 1935, p. 108).

22) 경험보다는 이성적 추론에 의존하는 철학적 방법론인 선험적(a priori) 방법과 종교적 신념 및 합리적 사고의 결합을 강조하는 케임브리지의 독특한 학문적 전통을 의미한다.

2. 알프레드 마셜

『마셜 평전』은 1924년 알프레드 마셜의 사망 직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쓴 글이다²³⁾. 이 글에서 케인즈는 마셜의 위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그의 약점과 내적 갈등까지 진솔하게 분석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학자의 길이 얼마나 숭고하면서도 험난한지를 묘사한다.

1) 경제학의 도덕적 목적

케인즈는 마셜이 경제학을 ‘부(富)의 본성과 원인’을 다루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발전’을 향한 도덕적 사명을 지닌 학문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케인즈에 따르면, 마셜은 인간이 ‘고차원의 능력’을 발휘하며 예술·학문·공동체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좋은 삶’(good life)²⁴⁾을 살기 위해서는 빈곤 퇴치와 같은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마셜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연구, 곧 인류 다수의 타락을 가져온 원인에 대한 연구”가 경제학의 직접적인 목표이어야 한다고 천명하며, “경제학의 영역에 속한 사실 및 추론”에 기초해 인류의 “발전 가능성”에 기여함으로써 “고차원적 삶의 전제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eynes, 1924, p. 170).

2) 대가 경제학자의 자질: 드문 재능들의 통합

케인즈는 마셜이 “현자와 목자(sages and pastors)”인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한 이중적 본성”을 지녔다고 말한다(Keynes, 1924, p. 173). 이때, 인류의 발전을 돕고자 하는 ‘현자’는 추상적인 목표를 “실천적 진보의 필요성에 종속”시키는 반면,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과학자’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과 활공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Keynes, 1924, p. 173). 케인즈에 의하면, 마셜은 과학자로서는 최고였

23) 이 글은 케인즈 자신이 편집자로 있던 학술지 *The Economic Journal* 1924년 9월호에 처음 실렸다.

24) 마셜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단련하고... 도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얻게 되는 희열”(Marshall, 1890, p. 59-60)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그는 역량을 발휘하는 다양한 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eudaimonia) 전통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이 전통에서는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꽃피우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자 진정한 행복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만 설교가나 목자로서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셜은 ‘현자’의 자아를 ‘과학자’의 자아보다 우위에 두려 했으며, 이 내적 갈등 속에서 에너지가 소진되었다(Keynes, 1924, p.173).

그러나 케인즈는 “그가 지닌 본성의 다면성이 순수한 장점이었다”고 평가한다(Keynes, 1924, p.173). 케인즈는 경제학이 지적으로는 “철학이나 순수과학의 고등 분야에 비해 매우 쉬운 학문”처럼 보임에도 “좋은 경제학자는 물론 유능한 경제학자조차 극히 드물다”는 역설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대가 경제학자(the master-economist)는 재능들의 희귀한 조합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찾는다(Keynes, 1924, p.173).

그[대가 경제학자]는 어느 정도는 수학자, 역사학자, 경제가, 철학자이어야 한다. 그는 기호를 이해하고 말로 표현해야 한다. 그는 일반적인 것의 관점에서 특수한 것을 숙고하고... 추상과 구체를 동일한 사고의 비행 속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 그는 미래를 목적으로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연구해야 한다. 인간 본성이나 제도의 어떤 부분도 그의 관심 밖에 완전히 놓여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의 마음가짐 안에 목적의식과 초연함을 동시에 지니어야 한다. 예술가처럼 초연하고 청렴하면서도... 때로는 경제가처럼 현실적이어야 한다(Keynes, 1924, pp.173-174).

3) 수학 및 도표 등 형식적 방법의 부차적 역할

케인즈는 마셜이 “현대 도표 경제학(modern diagrammatic economics)의 창시자”로서 “수학적이거나 도표적인 작업들”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평가한다(Keynes, 1924, p.185). 그는 이러한 “우아한 장치”가 “우리의 직관에 영감을 주고 점점하는 수단”이자 “우리가 만든 결과의 속기 기록”으로서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한다(Keynes, 1924, pp.185-186). 하지만 마셜은 수학적 방법의 강조는 “경제적 탐구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거리가 멀다고 느꼈다(Keynes, 1924, p.186). 그 이유는 경제학의 진짜 어려움이 형식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셜에게 “경제 이론의 핵심 골격”을 수학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경제학의 진정한 과업, 곧 “복잡하고 불완전하게 알려진 경험적 사실들에 관한 경제학적 해석”에 비하면 “극도로 쉬운” 것으로서, 유용한 결과를 낳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²⁵⁾ (Keynes, 1924, p.186).

이 논점은 마셜과 케인즈가 생각한 경제학의 진정한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진정으로 어려운 작업은 수학적 기호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를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적 형식주의에만 매몰되는 것은 경제학의 ‘쉬운’ 부분에만 머무르고 정작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는 행위가 된다. 케인즈는 마셜이 세상을 실험실 삼아 다양한 활동들을 세세하게 관찰하고자 했다는 점, 이를 위해 “현실의 사업 및 노동 계급의 삶과 더 긴밀히 접촉하”길 원했다는 점도 강조한다²⁵⁾ (Keynes, 1924, p. 187).

4) 경제 이론의 본질: ‘진리의 체계’가 아닌 ‘진리 발견의 엔진’

케인즈에 따르면, 마셜은 “경제 이론을 현재의 경제생활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아주 일찍 도달했다”(Keynes, 1924, p. 196). 마셜은 1885년 케임브리지 취임 강연에서 그의 시대에 이르러 경제학의 관점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인간 자신이 상당 부분 환경의 산물이며 환경과 함께 변한다는 발견”에 있다고 말한다(Keynes, 1924, p. 196). 그가 보기에 리카도와 같은 초기 경제학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역사나 통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일종의 불변량으로 간주하고 그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거의 공을 들이지 않은 데” 있었다(Keynes, 1924, p. 196). 그들은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힘이 실제보다 “훨씬 더 기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작동”한다고 착각했으며, “산업의 습관 및 제도가 얼마나 변화하기 쉬운지”를 간과했다(Keynes, 1924, p. 196).

마셜은 리카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특정 종류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보편적 진리”라고 착각함으로써 “어설픈 학자들”에게 “경제학적 도그마를... 오용할” 기회를 주었다고 보았다(Keynes, 1924, p. 196). 이는 모델을 구성하는 2차 명제들의 논리 구조 자체는 보

25) 케인즈는 이 지점에서 막스 플랑크(Max Planck) 교수의 일화를 소개한다. 플랑크는 경제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그가 의미한 것은 “수리경제학의 전체 체계”가 아니었다. 경제학의 진짜 어려움은 “논리와 직관 그리고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융합해 최고 수준의 경제적 해석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 케인즈에 따르면, 이러한 융합의 재능은 “고도로 정밀하게 알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사실들”을 다루는 물리학자의 재능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Keynes, 1924, p. 186).

26) “마셜에게 예비적인 수학은 어린아이의 장난이었다. 그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실험실로 들어가, 그 포효를 듣고 여러 음들을 구별하며, 기업가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러면서도 고도로 지적인 천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기를 원했다”(Keynes, 1924, p. 187).

편적 성격을 지니지만,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a)은 항상 특정한 전제(h)에 의존하는 상대적이고 간접적인 지식이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그는 “경제학적 추론의 핵심 체계”에는 “높고 초월적인 보편성”이 있지만, 그로부터 도출된 “경제학적 도그마에는 어떤 보편성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방법론적 신념을 천명하고, “경제학적 이론 및 추론 체계”란 “구체적인 진리의 총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엔진”이라는 유명한 정의를 제시한다(Keynes, 1924, p. 196).

이러한 마셜의 통찰을 TP의 인식론적 틀로 재구성해보자. ‘구체적인 진리’는 특정 전제(h)와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는 ‘결론(a)’ 혹은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간접적 지식’에 해당한다. 반면 ‘도그마’는 이 결론(a)이 근거하고 있는 전제(h)의 가변성과 상대성을 망각한 채, 모델의 산출물을 모든 시공간에 유효한 불변의 1차 명제로 격상시킨 상태를 의미한다. 마셜이 모델을 ‘엔진’으로 명명한 것은 모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로부터 직접적 친숙을 통해 확보된 파편화된 직접적 지식을 투입하여 새로운 지식을 길어 올리는 도구적 유용성에 집중해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세상에 적합한 전제(h)를 선별하는 ‘기예’적 안목이 결여된 경제학자가 모델을 도구 이상의 보편적 진리로 숭배할 때, 경제학은 인식론적 정확성을 상실한 채 현실과 절연된 도그마의 늪에 빠지게 된다. 모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는 모델이 전제로 삼은 인간의 심리나 제도의 가변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5) 경제학의 전문 과학화

마셜은 1885년 모교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정치경제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취임 강연에서 경제학 교육의 제도적 독립을 요구하며²⁷⁾, 앞으로 경제학에는 “사실에 대한 더 폭넓고 과학적인 지식”과 “시대의 경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더 강력하고 완전한 사고 체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Keynes, 1924, p. 221). 마셜은 이와 관련해 “경제학에서 그동안 주로 사용되었던 웅변과 박식함”이 아니라 “머리를 냉철하게 유지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원인들의 상

27) 마셜의 교수 임용 당시, 케임브리지에는 경제학파가 없었다. 경제학은 도덕과학과(Moral Sciences Tripos)와 역사학과의 커리큘럼에 포함된 과목 중 하나였고, 마셜은 ‘정치경제학 교수’라는 직함은 가졌지만, 다른 학과에 속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독립된 학과의 수장은 아니었다(Tribe, 2022, 4장).

호작용을 추적하고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요구된다며, “훈련된 과학적 정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Keynes, 1924, pp. 221-222). 이는 마셜이 경제학의 지적 중심을 인문학적 서술에서 과학적 분석으로 옮기려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가 사용한 ‘사고 체계’(organon)라는 단어는 경제학이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인 이론 및 사고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케인즈는 마셜을 “경제학을 물리과학이나 생물과학에 비견되는 과학적 정확성을 갖춘 독립된 학문으로 구축하는 데 평생을 바친 최초의 인물”이자, “순수 혈통 중 최초의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상찬한다(Keynes, 1924, p. 222). 그가 주목한 마셜의 핵심적 기여는 경제학을 여타 학문에 부수된 교양 과목에서 탈피시켜, 독자적인 연구 대상과 분석 도구를 갖춘 하나의 독립된 ‘전문과학’으로 격상시킨 데 있다. 케인즈에 따르면, 마셜은 “생리학이 임상의와 거리를 두는 것만큼이나 정치와 거리를 두는 전문적인 과학적 태도”를 경제학에 도입한 선구자였다(Keynes, 1924, p. 222). 마셜은 순수 이론을 정립하는 전문 경제학자와 그들이 고안한 ‘구체적 진리 발견을 위한 엔진’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적 경제가의 역할을 분리하고자 했다. 이는 경제학을 당대의 논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제 시스템이라는 유기체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객관적 기초 과학으로 발전시키려는 기획이었다. 그러나 마셜이 정립한 이러한 ‘전문과학’으로서의 위상은 1938년 케인즈가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도덕과학”이라고 선언한 대목과 표면적인 긴장을 형성한다. 경제학을 아마추어리즘에서 구출하여 학문적 엄밀성을 부여하려던 마셜의 기획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 성공은 역설적인 위험을 수반했다. 즉, 독자적 지위를 획득한 경제학이 자신의 뿌리인 도덕철학적 토대를 망각한 채, 스스로를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자연과학이나 순수 논리학으로 오인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3. 프랭크 램지와 아이작 뉴턴

1) 프랭크 램지

EB에는 1930년 세상을 떠난 프랭크 램지를 추모하는 추도문도 실려 있다. 케인즈는 이 추도문에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가진 독특한 지적 매력과 본질을 다른 학문과 대비시킨다. 그에 의하면, 학문에는 “사고 및 심리학의 기초를 연구”하는 고통

스러운 길과 “도덕과학 분과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길”이 있다(Keynes, 1930, p. 335). 전자는 순수 논리학·형이상학·인식론 등 모든 학문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파고드는 순수 철학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길이 ‘고통스럽다’고 표현된 것은, 현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적고 끝없는 추상의 세계에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지적 고행이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는 경제학을 뜻한다. 케인즈에 따르면, 경제학은 “이론과 사실, 직관적 상상력과 실천적 판단력이 인간의 지성에 편안한 방식으로 혼합”된 학문이다(Keynes, 1930, p. 335). 경제학의 길이 즐겁다고 말한 이유는 경제학이 인간 지성의 다양한 능력들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지적 종합의 학문’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순수 이론의 공허함에도, 단순한 사실 나열의 무의미함에도 빠지지 않고 양자를 넘나들며 지적 긴장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램지에 대한 추도문은 케인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학자의 지적 초상화이자 경제학 예찬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학자는 순수 철학의 ‘고통스러운’ 길을 걸을 필요가 없는 대신, 훨씬 더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받으며, 그 능력들을 조화롭게 발휘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즐거움을 얻는다. 경제학은 창조적 발견의 희열과 현실 문제 해결의 보람을 동시에 제공하며, 경제학자는 자신의 ‘직관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실천적 판단’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그 모델을 사용한다.

2) 아이작 뉴턴²⁸⁾

케인즈는 뉴턴의 비범한 천재성을, 그의 수학적 기술이 아니라, “순수한 정신적 문제를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있다가 마침내 그것을 꿰뚫어 보는 힘”에서 찾는다(Keynes, 1942, pp. 365-366). 그는 이 힘을 “인간이 부여받은 것 중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직관의 근육(muscles of intuition)”이자, “비밀이 그에게 굴복할 때까지 몇 시간, 며칠, 몇 주 동안” 문제를 장악하는 끈질긴 집중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Keynes, 1942, pp. 365-366). 이때 ‘직관’은 지속적 사고를 통해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논리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증명을 선행하는 이해와 확신”을 제공한다(Keynes, 1942, pp. 365-366).

케인즈가 뉴턴의 천재성을 수학적 기교가 아닌 직관의 힘에서 찾은 것은 TP에 명

28) 이 글은 아이작 뉴턴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영국왕립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되었고, 1942년 완성되었다.

시된 직접적 지식의 우선성을 투영한다. 뉴턴의 사례에서 수학적 증명은 사후적 정당화에 불과하며, 진리의 실질적 포착은 전제(h)와 결론(a) 사이의 논리적 연결 고리를 마음이 직접 지각하는 명제적 직관을 통해 선행적으로 완료된다. 이는 모든 지식의 사슬이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증명 불가능한 기초, 즉 직관에 의한 직접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V. 1938년 편지의 재조명

1. 도덕과학 및 논리학으로서의 경제학

케인즈는 1938년 편지에서 경제학이 “논리학의 한 분야”이고(Keynes, 1938a, p. 296), “본질적으로 도덕과학”(Keynes, 1938a, p. 297)이라고 말한다.

1) 도덕과학으로서의 경제학: TP의 범주를 통한 내성과 가치판단의 재구성

케인즈는 편지에서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인간의 내면이므로 ‘내성’ 및 ‘가치판단’이라는 도구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도덕과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다. 이를 TP의 논리적 틀로 재구성해 보면, 이 두 도구가 경제학의 지식 생산 체계 안에서 학문의 고유한 정체성을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경제학자가 수행하는 내성은 TP의 지식론에서 논의되는 ‘직접적 지식’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TP는 지식의 기원을 우리가 명제를 증명 없이 직접 지각하는 상태에서 찾는 데, 여기에는 외부의 감각 자료뿐만 아니라 사고 주체 자신의 지각이 포함된다. 경제학의 대상은 사고하며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이기에, 경제학자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내성을 통해 인간 행위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동기와 기대를 파악한다. 이는 단순히 주관적인 감상을 기록하는 일이 아니라, 비증명적 추론을 시작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h)를 포착하는 인식 경로가 된다. 내성을 통해 포착된 인간의 사고 상태에 관한 명제들이 전제로 놓일 때, 경제학적 모델은 수량화된 데이터 뒤에 숨은 실질적인 관련성을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지식을 완결 짓는 것은 가치판단의 몫이다. TP는 확률이 항상 수치로 비교될 수 없다는 ‘통약불가능성’을 전제하며, 확률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증거의 총량을 가리키는 ‘논증의 무게’를 제시한다.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은 중

중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여 단일한 척도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때 가치판단은 특정 논증에 어느 정도의 규범적 무게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추론을 실천적 행위로 연결하는 장치가 된다. 가치판단은 논리적 분석이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비증명적 논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내성과 가치판단은 이처럼 지식 생산의 시작과 끝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내성이 모델 제작에 필요한 심리적 명제들을 전제로 공급하여 추론의 재료를 마련한다면, 가치판단은 그 모델의 결과에 규범적인 정당성을 부여하여 경제학의 실천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지식 생산의 연쇄는 경제학이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모방하는 기술적 분석에 머물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경제학이 도덕과학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연구 도구 및 대상이 모두 인간의 직접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TP의 프레임으로 보면 경제학은 내성을 통해 얻은 심리적 명제들을 전제로 삼고, 가치판단을 통해 비수치적 논증의 무게를 결정하는 정교한 논리학적 기예에 가깝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 자체에 직접적 판단과 인간적 가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학이 단순히 수치를 다루는 학문을 넘어 인간 상황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학으로 발현되는 토대가 된다. 특히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평은 모든 개인이 경제적 근심에서 벗어나 윤리적·미학적 가치를 향유하는 ‘좋은 삶(the good life)’의 구현에 있다²⁹⁾. 경제학적 모델은 물질적 결핍을 해소함으로써 인간이 비로소 고귀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2) 논리학으로서의 경제학: 사고의 방식과 모델의 재정립

경제학을 도덕과학으로 정립하려는 관점은 경제학이 ‘논리학’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띠어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만약 경제학의 대상이 ‘사과’의 비유처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동질적이라면, 경제학은 자연과학과 같은 경험적 법칙 발견의 학

29) 케인즈는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좋은 상태’(good states of mind)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평생 간직하며 ‘좋은 삶’을 지향했다. 마음의 좋은 상태들은 “성취나 결과와는 무관하며” “그 자체로 좋은 것”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며, 삶의 주요 목표는 “사랑, 미적 경험의 창조와 향유, 그리고 지식의 추구”였다(Keynes, 1938c, p. 436-437). 케인즈의 ‘좋은 삶’에 대한 연구로는 박종현(2024)을 볼 것.

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동기, 기대, 심리적 불확실성’처럼 주관적이고 비수량적이며 좋은 삶의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도덕과학의 영역에 속한다면, 경제학은 측정 및 보편적 귀납이라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포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케인즈는 경제학이 단순한 주관적 해석이나 역사적 서술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논리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는 당대 고전학과 전통의 영국 경제학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나소 시니어(Nassau Senior)에 따르면, 경제학자의 전제는 관찰이나 의식의 결과로서 매우 일반적인 명제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증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익숙한 것이며, 올바르게 추론했다면 그 결과 역시 전제만큼 확실한 성격을 갖는다³⁰⁾ (Senior, 1836, p.2 [Colander, 2011, p.186 재인용]). 케인즈는 이러한 전통을 토대로 TP을 통해 그 논리학의 기초를 새롭게 정립했다. 경제학은 무엇이 객관적 진리인가를 탐구하기보다, 불확실하고 비수량적인 증거들(h) 하에서 어떤 결론(a)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탐구하는 사고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과학의 본질에 적합한 경제학의 논리는 형식 논리가 아니라, 합리적 믿음의 정도를 다루는 확률적 논리어야 한다.

3) 모델: 사고를 확장하는 인식론적 장치

케인즈에게 모델은 현실을 단순화한 복제품이 아니라, 파편화된 직접적 지식으로부터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간접적 지식인 ‘경제 이론’을 생성하기 위한 인식론적 장치(epistemological device)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체계 속에서 모델은 직접적 지식인 전제(h)로부터 간접적 지식인 결론(a)을 도출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a/h)를 규정한 2차 명제들의 체계로 정의된다.

30) 시니어는 이어서 “그러나 그의 결론은, 그 일반성과 진실성이 어떠하든, 그에게 단 한 마디의 조언이라도 덧붙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 특권은 ... 모든 원인을 고려한 작가나 정치가에게 속하는 것이지, 그 원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만을 고려한 이론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며, 경제학자의 “임무는 권고하거나 말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면 치명적이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서... 주된 지침으로 사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아마도 실행 불가능할 일반 원리를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enior, 1836, pp.2-3). 논리학의 성격을 띠는 ‘순수’ 경제 이론의 목적을 ‘일반 원리의 확립’에 두고 ‘정책 조언’과는 거리를 두는 이러한 입장은 메이너드 케인즈의 아버지인 네빌 케인즈(John Neville Keynes)에 의해서도 옹호되었다. 이들은 경제학이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믿었다(Colander, 2011, pp.186-187).

여기서 모델의 본질은 1차 명제와 2차 명제의 기능적 대비를 통해 선명해진다. 결론 a 그 자체의 참과 거짓이라는 개별 사실을 다루는 것이 1차 명제의 영역이라면, 모델을 구성하는 2차 명제는 주어진 증거 h가 결론 a를 어느 정도로 지지하는 가라는 ‘논리적 적합성’에 집중한다. 즉, 모델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는 논리적 유의미성을 확보하도록 구조화하는 사고의 틀이다. 이 단계에서 지식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모델이라는 인식론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정교화와 확장이 가능한 논리적 토대를 획득하게 된다³¹⁾. 이때, 모델의 유효성은 장치 내부의 논리적 정교함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전제(h)들이 현실과 맺고 있는 ‘적합성(relevance)’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리 정교한 2차 명제의 체계를 갖춘 모델일지라도, 그것이 포착하는 전제가 현재 세상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모델이 산출하는 이론은 인식론적 정확성을 상실한 도그마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4) GT 투자 이론의 사례: 투자 판단의 논리적 기초 설정

GT의 투자 이론과 관련해 제시된 두 가지 모델의 사례를 통해 모델의 특성을 확인해보자. 첫째, 현실의 다양한 변수 중 ‘기대 수익’과 ‘비용’이라는 두 요소를 추출해 논리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비교와 한정’의 장치인 투자 결정 모델이 있다. 경제학자는 내성 및 관찰을 통해 확보된 자본의 한계효율(MEC)에 관한 심리적 기대, 현재의 이자율(r), 그리고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등을 직접적 지식인 전제(h)로 확보한다. 모델은 이 전제들 사이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규정해 기대 수익률이 비용을 상회하는지를 비교하는 2차 명제(a/h)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투자 실행 여부라는 결론(a)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직접적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대비 가능한 전제의 체계로 구조화하는 주요한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개별 투자가 경제 전체의 총소득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치인 투자 승수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한계소비성향(MPC)과 독립투자(I)의 규모를 전

31) 모델과 경제 이론은 층위적으로 구분된다. 모델은 전제들로부터 논리적 귀결을 이끌어내는 엄밀한 ‘2차 명제들의 체계’이자 장치이며, 이 장치를 가동하여 얻은 결과물인 거시적·총체적 간접적 지식이 바로 ‘경제 이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델은 그 자체로 완결된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이론적 지식을 길어 올리기 위한 인식론적 통로로 기능한다.

제(h)로 삼아, 개별 행위가 경제 전체의 결과로 나타나는 논리적 경로를 규명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델은 $k=1/(1-MPC)$ 라는 승수 관계의 논리 체계(a/h)를 통해, 개별적인 소비 성향에 관한 직접적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경제 전체의 변화를 총소득의 증분(ΔY)이라는 간접적 지식(a)으로 도출한다. 이는 파편적인 지식을 경제 구조 전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현재 세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 모델의 고안과 개선

케인즈는 해로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제학을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과 현재 세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가 결합한 학문”이라고 말한다(Keynes, 1938a, p. 296). 이때,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는 주어진 모델들 중 하나를 단순히 고르는 수동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현실에 대한 ‘기민한 관찰’을 통해 ‘새롭게 향상된 모델을 고안’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끊임없이 ‘모델의 선택을 개선’해 나가는 능동적인 지적 활동을 포괄한다. 케인즈는 또한 ‘모델 제작의 전문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델이 적용되어야 할 지지분한 사실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Keynes, 1938b, p. 300), 이러한 진술들로부터 모델 선택의 기예에는 모델 제작과 관련된 일련의 지적 실천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1) 기예의 출발점: ‘기민한 관찰’을 통한 적합한 전제의 포착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의 출발점은 우리 체제 전체의 실제 작동에 대한 기민한 관찰을 토대로 수많은 현실의 파편들 속에서 현재 세상을 규정하는 ‘적합한 증거’들을 찾아내고 이를 전제(h)로 설정하는 작업이다. 이때 경제학자는 모델의 전개를 위해 직접 투입되는 ‘작동적 전제’뿐만 아니라, 그 전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심층적 보조 전제’를 동시에 포착한다. 예컨대, 투자 모델에서 이자율(r)이나 자본의 한계 효율(MEC)이 모델 가동을 위한 작동적 전제라면, ‘근본적 불확실성’과 ‘동물적 충동’은 이러한 전제들이 왜 단순한 계산 수치가 아닌 가변적인 심리적 기대를 반영해야 하는지를 정당화하는 심층적 전제가 된다. 경제학자는 이러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모델의 부적합성을 비판하고, 현실의 구조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뼈대를 고안한다.

2) 기예의 확장: 추가 전제의 발견과 모델 구조의 개선

모델 선택의 기예는 일차적인 전제 설정에서 나아가,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추가적인 작동적 전제들을 발견·적용해 모델의 구조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경제학자는 모델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기존 논리가 간과했던 심층적인 전제들을 찾아내어 이론화의 틀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다. 이러한 기예적 활동은 단순히 전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된 추가 전제가 기존의 논리 구조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실의 복잡성을 해명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제학자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평면적 관계의 모델을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논리 체계로 발전시킨다. 이처럼 추가적인 전제의 발견을 통해 이론화의 틀을 확장하는 행위는, 모델이 단순한 수식의 나열을 넘어 현재 세상의 심층적 성격을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한 인식론적 장치로 기능하게 만든다.

3) 다중 모델 접근법에 근거한 기예의 실천

Colander (2011)에 따르면,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는 단일 모델의 환상에서 벗어난 다중 모델(many models) 접근법으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그는 1938년 편지에서 모델을 지칭할 때 복수형(models)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케인즈 방법론의 핵심이 하나의 완벽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Colander, 2011, pp.185-186).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학자는 다양한 모델들의 적절성을 가늠하는 메타 모델(meta-model)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개별 모델들이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는 잠정적 도구임을 인식하며, 각자의 판단과 직관을 개입시켜 잠정적 도구로서의 모델을 수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³²⁾.

4) GT 투자 이론 사례: 모델의 고안(Devising)과 개선(Improving)

32)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거시경제학의 웅장한 종합을 이끌었던 IS/LM 모델의 성공 비결을 재해석할 수 있다. 콜랜더는 IS/LM 모델이 과학적 엄밀성 측면에서는 결함이 있었으나, 바로 그 결함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각자의 상이한 판단과 직관을 개입시켜 모델을 주무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한다(Colander, 2011, p.195). 즉, IS/LM은 그 자체로 완결된 규칙이 아니라, 기예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반만 완성된 모델’로서 실천적 유용성을 획득한 것이다. 이는 모델 내부에서 모든 진리가 발견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경제학자의 기예적 영역을 거세해버린 현대의 DSGE 모델과 같은 왈라스적 일반균형 접근법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Colander, 2011, p.192).

‘현재 세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는 GT의 투자 모델이 구축되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표준적 모델이 지닌 인식론적 한계를 비판하고, ‘기민한 관찰’에 근거해 새로운 논리적 장치를 고안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델 제작 과정의 실재를 보여준다. 첫째, 모델의 초기 ‘고안’(devising) 단계는 이자율에 의해 투자가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고전학파의 ‘시대에 뒤떨어진 모델’을 해체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기존 모델은 저축과 투자가 이자율이라는 가격 기구를 통해 기계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평면적 전제에 기초하고 있었다. 변화한 경제 체제의 실제 작동 방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제는 적합성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작동적 전제로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치인 ‘자본의 한계효율(MEC)’을 도입하는 새로운 모델이 고안되기 시작한다. 이때 ‘근본적 불확실성’과 ‘야성적 충동’은 MEC가 단순한 계산 수치가 아닌 가변적인 심리적 기대를 반영해야 함을 뒷받침하는 심층적 보조 전제로 기능하며, 투자의 유인 구조를 새롭게 고안하는 논리적 기초가 된다.

둘째, 고안된 모델은 이자율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전제의 추가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개선’(improving) 된다. 초기 모델이 MEC와 r 의 비교에 집중했다면, 확장된 모델은 이자율(r) 자체가 대부자금의 수요 및 공급이 아니라 인간의 ‘동기 및 기대’를 반영한 화폐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실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도출된 ‘유동성 선호’라는 이러한 추가 전제는 기존의 투자 모델에 화폐적 불안정성이라는 차원을 결합시킨다. 모델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유동성 선호 · 이자율 · 자본의 한계효율이 상호작용하는 다층적인 논리 구조를 갖추게 되고, 단순한 수식을 넘어 현재 세상의 복잡성을 해명할 수 있는 견고한 ‘사고의 도구’로 완성된다. 투자 모델의 구축 과정은 현재 세상에 적합한 증거를 포착하여 심층적 · 작동적 전제를 수립하고, 기존 모델의 부적합성을 넘어 새로운 논리적 고리를 발견해 이를 실천적인 모델로 직조해내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 지식의 확장과 이론의 생성

케인즈에게 경제학이 ‘과학’인 이유는 그것이 엄밀한 모델에 기반하여 사고하기 때문이다. 1938년 편지에서 그는 경제학을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과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의 결합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과학의 영역은 기예를 통해 마련된 ‘사고의

도구’, 곧 모델을 가동해 파편적인 직접적 지식으로부터 논리적 귀결을 이끌어내고 이를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간접적 지식, 곧 경제 이론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모델의 가동: 상수와 변수의 격리를 통한 논리적 사고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의 일차적 기능은 현실의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상대적으로 불변하는 요소들을 일시적이거나 변동하는 요소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이다. 이는 TP의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증거(h) 가운데 결론(a)과 필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핵심 전제들을 모델이라는 틀 안에 고정하는 작업이다. 모델은 이처럼 핵심 변수들을 고립시킨 상태에서 ‘논리적 사고 방식’을 전개할 환경을 제공한다. 경제학자는 모델 내부의 논리적 연쇄를 따라 추론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사실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규명한다.

2) 논증의 엔진: 비증명적 논리를 통한 사고의 구조화

이러한 과학적 사고는 단순히 정답을 산출하는 기계적 연산이 아니라, 불확실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서 있는 방법이자 ‘비증명적 논리’의 발현이다. 마셜이 경제 이론을 진리 발견을 위한 ‘엔진(engine)’으로 명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델은 그 자체가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간접적 지식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인식론적 장치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때, 엔진의 진정한 가치는 모델이 특정 수치로 고정되지 않은 사고의 틀로서 일반성을 유지할 때 발휘된다. 모델의 목적은 정량적인 수치 예측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전제 하에서 어떤 결론을 믿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합리적 믿음’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은 수학적 정밀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증거와 결론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인식론적 정확성을 확보한다. 이 엔진을 통과하면서 단편적인 이해들은 체계적인 이론적 설명으로 정교화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논리적 필연성에 근거한 사고의 구조화를 가능케 한다.

3) 지식의 확장: 직접적 지식에서 총체적 간접적 지식으로

모델을 통한 사고는 필연적으로 지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우리가 내성과 관찰을 통해 얻는 지식은 파편적인 ‘직접적 지식’에 불과하지만, 이를 모델이라는 장치에 통과시키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시스템의 원리에 관한 ‘간접적 지식’이 산출된다.

이때 ‘모델’과 ‘이론’의 층위적 구분이 명확해진다. 모델은 전제와 결론을 연결하는 개별적인 ‘장치’ 혹은 ‘논리 엔진’이며, 이 장치들을 가동하여 얻은 결과물들이 종합된 상태가 ‘이론’이다. 즉,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은 개별 모델들이 산출한 논리적 결론들을 체계적으로 결합하고, 경제 체제 전체에 대한 총체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지적 도약의 과정이다.

4) GT 투자 이론의 사례: 투자 모델의 운용과 유효수요 이론의 도출

앞에서 살펴본 GT의 투자 모델이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을 통해 이론의 생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GT의 핵심 체계인 ‘유효수요 이론’과 고용 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자본의 한계효율 및 유동성선호 개념에 기초한 ‘투자 모델’은 ‘투자 승수 모델’과 결합된다. 이 모델들의 연쇄적 가동을 통해, 기업가의 개별적인 투자 결정(I)이 어떻게 소득 전체의 증대(ΔY)로 연결되는지 그 논리적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델 운용의 최종 산출물이 ‘유효수요 이론’이다. 이는 단순히 투자가 얼마인가를 맞추는 지식이 아니라,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이 결합하여 어떻게 경제 전체의 고용 수준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간접적 지식이다. 그리고 이 과학적 사고의 과정 끝에 도달하는 지점은 기존 고전파 모델에서는 불가능했던 결론, 즉 ‘과소고용 균형’의 논리적 필연성이다. 파편적인 심리적 전제들을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의 틀에 투입했을 때, 경제 전체가 완전고용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정체될 수 있다는 총체적 지식이 비로소 생성되는 것이다.

4.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 과학적 엄밀성과 직관적 안목의 통합

1938년 편지에서 언급된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과 현재 세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의 결합”, “경제학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 “경제학의 올바른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art of thinking in terms of models)’이다(Keynes, 1938a, p. 296; 1938b, p. 300).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는 모델 제작의 기예적 직관과 모델 운용의 과학적 엄밀성이 최고조로 통합된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학자가 복잡한 현실과 추상적 논리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며 인간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도덕과학적 사명을 실천하는 방법론적 정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1) 사고의 고차원적 전개: 맬서스의 3단계와 논리적 종합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의 전형은 맬서스의 지적 발전 경로 중 가장 성숙한 단계인 제3단계의 방법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도덕철학적 원리를 경제 문제에 단순 적용하던 초기 단계나 단순한 사실 나열에 그치던 단계를 넘어, 선험적 사고로 돌아가 진정한 경제학자의 순수 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이 단계에서 대가 경제학자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제시하는 자료(h)에 형식적 사고의 방법(a/h)을 적용함으로써, 직관적 선택과 형식적 원리의 혼합을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이 제공하는 논리적 엄밀성과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예’가 제공하는 직관적 안목은 더 이상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사고 체계로 작동한다. 대가 경제학자는 모델이라는 형식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의 가변적인 데이터를 그 안에 유기적으로 녹여낸다. 이러한 지적 종합은 모델이 현실로부터 유래된 공허한 수식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파편적인 경험적 사실들이 모델이라는 엔진을 통해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설명력을 획득하게 한다.

2) 도덕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 대가 경제학자의 지적 초상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경제학자는 필연적으로 도덕과학자로서의 성격을 띤다. 대가 경제학자는 마셜의 진술처럼 어느 정도는 수학자·역사학자·경제가·철학자이어야 하며, 추상과 구체를 동일한 사고의 비행 속에서 함께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도덕과학자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본성이나 제도의 어떤 부분도 그의 관심 밖에 완전히 놓여서는 안 된다는 방법론적 원칙에 있다. 그는 목적의식과 초연함을 동시에 지닌 채, 미래를 목적으로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연구하는 실천적 성찰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경제학자에게 모델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상태와 사회적 가치를 사고하기 위한 인식론적 매개체이다. 케인즈에 따르면 경제학은 이론과 사실, 직관적 상상력과 실천적 판단력이 인간의 지성에 편안한 방식으로 혼합된 학문이다. 여기서 직관적 상상력은 기예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하는 힘이 되고, 실천적 판단은 그 모델을 사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덕적 나침반이 된다. 결국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는 경제학자가 자신의 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인간의 삶을 개선하려는 도덕과학적 사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활동이다.

3) 1938년 편지의 재해석: 피구와 마셜 비판의 인식론적 근거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의 관점에서 1938년 편지에 나타난 케인즈의 진술들을 재조명하면, 당시 동료 경제학자들을 향했던 그의 비판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케인즈는 피구 등 후기 고전학파가 너무 단순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모델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이론의 진보가 모델의 개선에 있음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피구는 모델이라는 엔진을 가동하는 과학적 절차에는 익숙했을지 모르나, 변화하는 현재 세상에 적합한 전제(h)를 선택하는 기예적 안목이 부족했다. 그들의 모델은 내부 논리는 정교할지언정 현실과의 접점이 끊겨 TP의 관련성 및 논증의 무게가 부족했다. 반면 마셜에 대한 비판은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케인즈는 마셜이 모델을 고안하는 천부적 기예가 있었음에도, 현실성을 높이려는 과도한 욕구와 추상적 윤곽에 대한 혐오로 자신의 모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마셜이 기예적 통찰력은 뛰어났으나 이를 ‘모델로 사고하는 과학’이라는 엄밀한 논리적 이행 속에 정제해 담아내는 구조화 단계에서 한계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마셜의 모델이 종종 모호했던 이유는 풍부한 현실적 직관이 과학적 추상화라는 여과 장치를 거치지 않은 채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4) GT 투자 이론의 최종적 완성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를 통한 이러한 지적 종합은 GT의 투자 이론에서도 확인된다. 1절의 해당 부분에서 투자 결정 모델과 투자 승수 모델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투자 결정 모델의 사례를 통해 모델의 제작 및 개선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3절에서는 투자 관련 모델의 운용으로부터 유효수요 이론이 생성되는 과정을 점검했다. 최종적인 통합 단계인 4절에서는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를 통해 완성된 투자 이론이 펼쳐진다. 완성된 투자 이론은 단순히 야성적 충동을 묘사하거나 승수 효과를 연산하는 개별적 단계를 넘어, 불확실성 하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왜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과 비자발적 실업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총체적으로 해명한다. 대가 경제학자는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를 통해 창조적 발견의 희열과 현실 문제 해결의 보람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모델과 이론을 바탕으로 시장의 자생적 회복력에 대한 환상을 깨고 정책적 처방의 정당성을 확립한다. 이는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로 대표되는 지식 생산 메커니즘이 이론적 엄밀성과 현실적 실천력의 결합을 통해 경제학이 도덕과학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지점을 실현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이 논문은 케인즈의 1938년 편지를 인식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그가 지향한 경제학 방법론의 총체적 구조를 복원하려 했다. 지금까지의 탐구를 바탕으로 이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 ‘케인즈에게 경제학은 왜 도덕과학이며 어떻게 과학이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답해보자. 케인즈에게 경제학이 도덕과학인 이유는 그 연구 대상이 고정된 자연법칙이 아니라 가변적인 인간의 동기와 기대, 그리고 근본적 불확실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문은 단순히 수치적 최적화를 탐구하는 기술적 영역을 넘어, 인간의 처지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가능성을 꽃피우는 ‘좋은 삶’을 실현하려는 규범적 지향을 내포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자는 내성을 통해 인간 행위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동기를 직접적 지식의 형태로 포착하여 모델의 전제(h)로 공급하며, 가치판단을 통해 비수량적 논증의 무게를 결정함으로써 추론을 실천적 행위로 연결하는 도덕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과학적 대상은 단순히 직관에만 머물지 않고 모델이라는 논리학적 장치를 통해 과학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때의 모델은 전제(h)와 결론(a)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규정하는 2차 명제들의 체계로 정의된다. 경제학자는 이러한 모델을 제작하고 운용함으로써 파편화된 직접적 지식을 경제 시스템 전체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간접적 지식으로 확장하며, 수학적·물리학적 정밀성이 아닌 비증명적 논리에 기초한 인식론적 정확성을 달성한다. 결국 ‘모델로 사고하는 기예’란 직관을 통해 현실 적합한 전제를 포착하는 기예적 안목과, 이를 이론적 체계 속에 정제하여 사고의 확장을 이끄는 과학적 엄밀성이 최고조로 통합된 고차원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케인즈의 이러한 경제학 방법론은 오늘날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연구 방식에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경제 시스템을 물리학과 유사한 폐쇄적 체계로 전제하며, 단 하나의 완벽한 모델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단일 모델의 환상에 빠져 있다. 반면, 인간의 심리적 요인을 연구의 전제로 수용하기 시작한 행동경제학의 등장은 케인즈가 강조한 도덕과학적 면모를 일부 복원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비록 주류 행동경제학이 여전히 수

치화된 모델링에 치중하는 한계는 있으나, 인간의 동기와 기대를 사고의 중심에 놓으려 한다는 점에서 케인즈의 방법론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지향을 보여준다 (Thaler, 2015; Thaler and Imas, 2025).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학자는 정교한 방정식을 푸는 기술적 역할을 넘어, 인간 본성 및 사회의 복잡성에 천착하고 이를 모델에 반영해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는 도덕과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이이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케인즈의 통찰로 돌아가 대가 경제학자의 회귀한 조합을 제도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즉, 과학(수학자)의 훈련뿐만 아니라, 기예(역사가, 경제가, 철학자)의 훈련, 즉 제도에 대한 지식, 역사 감각,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감수성을 커리큘럼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론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다중 모델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케인즈가 제안한 방법론의 핵심은 단 하나의 완벽한 모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완전한 모델들을 사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단일 모델의 환상에서 벗어나, 여러 모델들 중 상황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기예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형식적인 수학 모델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례 연구, 제도 분석, 문헌 연구,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Colander, 2011).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케인즈 철학의 핵심적 해석으로 삼은 오도넬 및 카라벨리의 관점과 궤를 달리하는 여타의 철학적 해석들과 본고의 논의를 비교·검토하는 작업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이와 더불어,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 논문에서 제시한 케인즈의 방법론적 틀을 GT의 전편에 걸쳐 더욱 심도 깊게 적용하는 작업, 경제학 방법론을 둘러싼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존 네빌 케인즈 및 마셜로 대표되는 케임브리지 전통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논의, 그리고 케인즈의 도덕과학 및 기예의 방법론을 로빈스의 경제과학이나 제도주의 경제학의 접근법과 본격적으로 비교·연구하는 작업 등은 함께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케인즈가 제시한 대가 경제학자의 사고가 현대 경제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권기철, “케인즈에서 확률과 불확실성, 기대의 문제,” 박만섭 편, 『케인즈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2002, pp. 19-42.
(Translated in English) Kwon, Ki-cheol, “Issues of Probability, Uncertainty, and Expectations in Keynes”, in Mansub Park (ed.) *The Economics of Keynes*, Dasan Publishing Co., 2002, pp. 19-42.
2. 김균, “철학자 케인즈와 『일반이론』의 방법론적 기초,” 박만섭 편, 『케인즈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2002, pp. 3-17.
(Translated in English) Kim, Kyun, “Philosopher Keynes and the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The General Theory”, in Mansub Park (ed.) *The Economics of Keynes*, Dasan Publishing Co., 2002, pp. 3-17.
3. 박종현, “‘우리 손주세대의 경제적 가능성’ 다시 읽기: 점진적 유토피아의 비전,” 『사회경제평론』, 제37권 제3호, 2024, pp. 95-147.
(Translated in English) Park, Jong-hyun, “Re-reading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A Vision of Gradual Utopia,” *Review of Social and Economic Studies*, Vol. 37, No. 3, 2024, pp. 95-147.
4. Alvey, J. E., “An introduction to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7, No. 12, 2000, pp. 1231-1252.
5. Atkinson, A. B.,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Economica*, Vol. 76, 2009, pp. 791-804.
6. Carabelli, A. M. and Mario A Cedrini, “Great Expectations and Final Disillusionment: Keynes’ ‘My Early Belief’ and the Ultimate Values of Capitalism,”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42, No. 5, 2018, pp. 1183-1204.
7. Carabelli, A. M., *Keynes on Uncertainty and Tragic Happiness: Complexity and Expectations*, Palgrave Macmillan, 2021.
8. Colander, D., “The Keynesian Method, Complexity, and the Training of Economists,” in Arie Arnon, Jimmy Weinblatt, and Warren Young (eds.), *Perspectives on Keynesian Economic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1, pp. 183-201.
9. Davis, John B., “Keynes’s Philosophical Thinking,” in Davis, John B. (ed.), *The State of Interpretation of Keynes*, Springer, 1994, pp. 223-244.
10. _____, “Keynes’s View of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Economics Faculty Research and Publications*, No. 421, 1991, pp. 89-103.
11. Educational Renaissance, “Aristotle’s Intellectual Virtues,” Accessed December 18, 2025. <https://educationalrenaissance.com/aristotles-intellectual-virtues/>
12. Gruchy, Allan G., “J. M. Keynes’ Concept of Economic Science,”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15, No. 3, 1949, pp. 249-266.
13. Harcourt, G. C. and C. Sardoni, “Keynes’s Vision: Method, Analysis and Tactics,” in Davis, John B. (eds.), *The State of Interpretation of Keynes*, Springer, 1994, pp. 131-152.
14. Harrod, R. F., “From R. F. Harrod,” 1938a, [Donald Moggridge, (ed.), *CW*, Vol. 14, *The General Theory and After, Part II: Defence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297-298.

15. _____, "Scope and Method of Economics," *The Economic Journal*, Vol. 48, No. 191, 1938b, pp.383-412.
16. Hoover, Kevin D., "Doctor Keynes: economic theory in a diagnostic science," in Backhouse, R. E. and B. W. Bateman,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Keynes*, 2006, pp.78-97.
17. Keynes, J.M., *A Treatise on Probability*, 1921, [Donald Moggridge, (ed.), CW, Vol. 8, *A Treatise on Proba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8. _____, "Alfred Marshall", *Essays in Biography*, 1924, [Donald Moggridge, (ed.), CW, Vol. 10, *Essay in 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161-231.
19. Keynes, J.M., "F. P. Ramsey: Ramsey as an Economist," *Essays in Biography*, 1930, [Donald Moggridge, (ed.), CW, Vol. 10, *Essay in 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335-346.
20. _____, "My Early Beliefs", *Essays in Biography*, 1938(c), [Donald Moggridge, (ed.), CW, Vol. 10, *Essay in 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433-450.
21. _____, "Newton, The Man", *Essays in Biography*, 1942, [Donald Moggridge, (ed.), CW, Vol. 10, *Essay in 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363-374.
22. _____, "Preliminary Data For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Principles To The United States In 1934," 1934, [Donald Moggridge, (ed.), CW, Vol. 13, *The General Theory and After, Part I: Prepa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462-471.
23. Keynes, J.M., "Robert Malthus: Centenary Allocution," *Essays in Biography*, 1933, [Donald Moggridge, (ed.), CW, Vol. 10, *Essay in 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104-108.
24. _____, "Thomas Robert Malthus: The First of the Cambridge Economists", *Essays in Biography*, 1933, [Donald Moggridge, (ed.), CW, Vol. 10, *Essay in 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71-103.
25. _____, "To R. F. Harrod", 1938a, [Donald Moggridge, (ed.), CW, Vol. 14, *The General Theory and After, Part II: Defence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295-297.
26. _____, "To R. F. Harrod", 1938b, [Donald Moggridge, (ed.), CW, Vol. 14, *The General Theory and After, Part II: Defence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299-301.
27. _____,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Moggridge, Donald (ed.), CW, Vol. 12,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28.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n., Macmillan, 1920. [The Online Library of Liberty A Project Of Liberty Fund, Inc.].
29. O'Donnell, R.M., *Keynes: Philosophy, Economics an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1989.
30. Pinker, S., Matt Ridley, Alain de Botton, and Malcolm Gladwell, *Do Humankind's Best*

- Days Lie Ahead: The Munk Debates*, House of Anansi Press, 2016. [전병근 옮김, 『사피엔스의 미래』, 모던아카이브, 2016.]
31. Raffaelli, T., "Keynes and philosophers," in R. E. Backhouse and B. W. Bateman,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Keyn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160-179.
 32. _____,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2nd edn, MacMillan and Co. Ltd., [1935] 1952. [이규상 옮김,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닌 속성과 중요성』, 지식을만드는지식, 2019.]
 33. Rona, P., "Why Economics Is a Moral Science," in Peter Rona and Laszlo Zsolnai, (eds.),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Springer, 2007. pp.3-9.
 34. Senior, N., *An Outline of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AM Kelley, [1836] 1938.
 35. Thaler, R.H., *Misbehaving: The Making of Behavioral Economics*, W. W. Norton & Company, 2015.
 36. Thaler, R.H. and A. Imas, *The Winner's Curse: Behavioral Economics Anomalies, Then and Now*, Simon & Schuster, 2025.
 37. Tribe, K., *Constructing Economic Science: The Invention of a Discipline 1850-1950*,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38. Witztum, A., "Keynes, Robbins and the Nature of Economics," in A. Arnon, Jimmy Weinblatt, and Warren Young, (eds.), *Perspectives on Keynesian Economics*, Springer, 2011, pp.103-130.

The Art of Thinking in Terms of Models: Why Economics is a Moral Science and How it Becomes a Science for Keynes*

Jonghyun Park**

Abstract

This study reconstructs Keynes's 1938 "art of thinking in terms of models" through the rigorous epistemological framework of the 1921 *A Treatise on Probability* (TP). Economics is defined as a moral science integrating artistic intuition – identifying relevant premises to devise and select models – with scientific rigor – using logical engines to expand fragmentary direct knowledge into macroscopic, holistic indirect knowledge. By applying this mechanism to *The General Theory*'s investment theory, the research demonstrates how models fulfill the practical goal of improving the human condition. Reinterpreting Keynes's thought within TP systematically reveals the comprehensive methodological essence of his moral science.

Key Words: John Maynard Keynes,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A Treatise on Probability*

JEL Classification: B2, B3, B4

Received: Nov. 12, 2025. *Revised:* Dec. 15, 2025. *Accepted:* Dec. 26, 2025.

* The content and format of this paper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thanks to the professional and sincere comments of anonymous reviewer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three reviewers.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01, Jinju-daero, Jinju-si, Gyeongsangnam-do, 52828, Phone: +82-1023879721, e-mail: ecohis@gnu.ac.kr